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이 11일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찰턴 애슬레틱과 홈 경기에서 힘껏 솟구쳐 헤딩슛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박지성, 이번엔 헤딩으로

‘과외 엔진’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헤딩으로 시즌 2호골을 터트렸다.

박지성은 11일 오전 영국 맨체스터 올드 트래퍼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6~2007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 찰턴 애슬레틱과 홈 경기에서 전반 24분 파트리스 에브라의 왼쪽 측면 크로스를 머리로 꽂아넣어 선제골을 뽑아냈다.

지난 달 14일 애스턴 빌라전에서 시즌 첫 골을 뽑아낸 박지성은 28일 만에 정규리그 2호골을 터트렸다.

잉글랜드 진출 통산 4호골(칼링컵 포함)이자 첫 결승골이다. 이번 시즌에는 2골, 1도움을 올리고 있다.

헤딩골은 맨유 입단 초기인 2005년 7월 아시아투어 비공식 경기 베이징 센다이(중국)전 골에 이어 두 번째다.

박지성의 활약에 힘입어 찰턴을 2-0으로

## 찰턴전 결승골, 시즌 2호...평점 8 ‘팀내 최고’

완파하고 정규리그 3연승을 달린 맨유는 21승3무3패(승점 66)로 리그 선두를 굳게 지켰다.

박지성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빠진 가운데 라이언 깁스, 폴 스콜스, 대런 플래처와 미드필더진을 구성했다.

지난 7일 그리스와 새해 첫 A매치에서 80분을 뛰 박지성은 나흘 만에 그라운드에서 나섰지만 전반 38초 만에 맨유의 첫 슈팅을 때리며 활약을 예고했다.

전반 6분에는 페널티지역 외곽 우측에서 볼을 잘라 강력한 오른발 슛을 날렸다. 골문 상단을 겨냥했지만 찰턴 골키퍼 스킷 카슨이 다이빙 선방으로 막아냈다.

박지성의 헤딩골은 절친한 팀 동료 에브

라의 발끝에서 연결됐다.

전반 24분 에브라가 왼쪽 측면에서 어렵게 크로스를 올리자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있던 박지성이 힘껏 솟구쳤다.

밀착 마크를 편 찰턴 수비수 벤 대처와 몸싸움 경험에서 이겨낸 박지성의 머리에 명중한 볼은 골문 오른쪽 구석으로 빨려들어 그물을 출렁였다.

박지성은 175cm의 키 작은 신장이지만 문전 대시와 점프 타이밍이 좋았다. 골문을 지키던 카슨은 꼼짝하지 못한 채 실점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박지성은 지난 달 28일 FA컵 포츠머스전과 그리스전에서 연달아 골 포스트를 맞춘 아쉬움을 한 번에 씻어냈다.

후반에도 좌·우 측면을 오가며 맨유의 공세를 주도한 박지성은 정규 시즌 두 번째 풀타임을 소화했다.

맨유는 후반 38분 플래처가 추가골을 뽑았다. 플래처는 웨인 루니가 슈팅 이후 골키퍼에 맞고 나온 볼을 가볍게 올려주자 텅빈 골문에 다이빙 헤딩슛을 꽂았다.

한편 ‘맨체스터 이브닝뉴스’ 인터넷판은 이날 선수 평점에서 박지성에게 팀내에서 가장 높은 8점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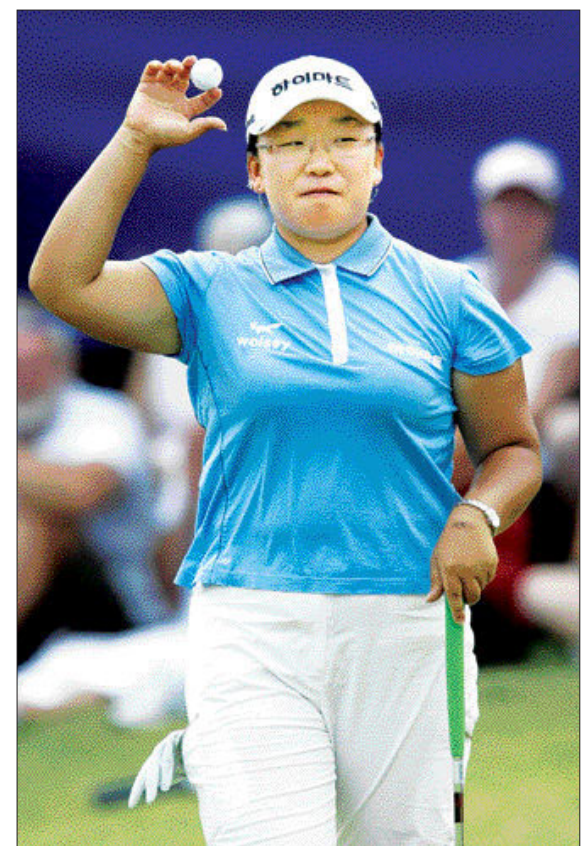
맨체스터 이브닝뉴스는 “박지성이 다시 한 번 왕성한 움직임(energetic effort)을 보여줬다. 그는 맨유가 필요로 한 일을 했다. 헤딩골은 보너스였다”고 평했다.

영국 스포츠 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 인터넷판도 박지성에게 ‘긍정적인 기여(positive contribution)’라는 논평과 함께 평점 7점을 줬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신지에 17언더 준우승

## 카리 웹 2타차 우승 ANZ레이디스마스터스 최종



신지가가 11일 유럽여자프로골프(LET) ANZ레이디스마스터스 마지막 라운드에서 경기를 마친 후 18번홀에서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작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서 신인왕, 상급왕, 다승왕 등 5개의 타이틀을 석권했던 신지에(19·하이마트)가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겨뤄 준우승을 차지했다.

신지에(19)는 11일 호주 퀸즐랜드주 골드코스트의 로열랜드스리프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 ANZ레이디스마스터스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7언더파 271타로 우승자 카리 웹(호주·269타)에 2타 뒤진 2위에 올랐다.

3라운드에서 코스레코드를(62타)를 뽑아낸 데 이어 이날도 4타를 줄인 웹을 따라잡는 데는 실패했지만 유럽 선수 뿐 아니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정상급 선수도 여럿 출전한 이 대회에서 신지에(19)는 KLPGA 투어 ‘1인자’의 위용을 한껏 과시했다.

웹과 미셸 엘리스(호주) 등 공동선두에 1타 뒤진 3위로 최종 라운드에서 웹과 동반 플레이에 나선 신지에(19)는 잠시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만 이곳에서 이미 5차례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웹의 불꽃살을 당해내지 못했다.

무명 선수인 엘리스는 8번홀(파4) 더블보기에 이어 13번홀(파4)에서도 2타를 잃으면서 2위 싸움에서 탈락했고 LPGA투어 통산 9승을 올린 강호 크리스티 커(미국·272타)는 68타를 쳤지만 신지에(19)가 1타가 모자랐다.

호주 원정에서 호주여자오픈 공동5위에 이어 이번 대회 준우승으로 세계적 수준의 기량을 확인한 신지에(19)는 오는 17일부터 하와이에서 열리는 LPGA 투어 2007년 개막전 SBS오픈에 초청 선수로 출전,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 도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박찬호 5선발 가능성”

## 뉴욕타임스 “찬호와 계약은 위험부담 낮은 도박”

수 있는 평범한 선수임을 받아들이기까지 쉽지 않았음을 암시한 것.

그는 이어 “뉴욕은 내가 꼭 가고 싶었던 팀이다. 그런 팀에서 제의가 왔을 때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조건이 어떻든 내가 좋아하고 가고 싶었던 팀이라는 게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다. 몸도 건강하니 더 자신감이 생기고 좋은 팀과 좋아하는 도시로 가게 되니 더욱 기분이 좋다. 많

은 고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힘이 됩니다”라고 메츠행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10일 뉴욕 메츠가 박찬호와 계약한 것은 ‘위험부담이 낮은 도박(low-risk gamble)’이며 박찬호는 5선발 투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박찬호가 1년 계약에 기본연봉 60만달러를 포함해 투구이닝에 따라 최대

300만달러까지 받기로 했다고 소개하고 1, 2선발을 제외한 나머지 선발 3자리를 놓고 적어도 9명의 투수와 경쟁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찬호의 경쟁자인 존 메인과 올리버 페레즈가 3, 4선발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마지막 5선발 자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박찬호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유망주인 필립 험버와 마이크 켈프리 등을 능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러나 험버와 켈프리가 정규시즌에서 117과 3분의 2이닝 이상 던진 경험이 없는 점을 들며 메츠 구단이 이들을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 박찬호의 5선발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메츠맨’으로 다시 태어나는 한국인 메이저리거 투수 박찬호(34)가 뉴욕 메츠를 선택한 건 계약 조건보다 진정으로 뛰기를 원했던 팀이었기 때문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찬호는 11일 팀61 홈페이지(www.chanhopark61.com) ‘찬호로부터’ 코너에 메츠와 입단 계약 후 처음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마음을 비우니 길이 보인다”는 의미의 ‘무심지도(無心至道)’를 인용해 “집착과 욕심을 벗어나 마음을 낮춰 자존심을 내지 말자는 나 자신과 약속에서 평평함이라는 화두를 만들었지만 현실을 알고 내 길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올해 기본 연봉 60만달러에서 출발해 199이닝을 채워야 최대 300만달러를 받을